

Hana Infinity



2026 April

FX Market Monthly Letter

연구위원 서정훈
seojh@hanafn.com

연구원 이유정
yjlee.r@hanafn.com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목차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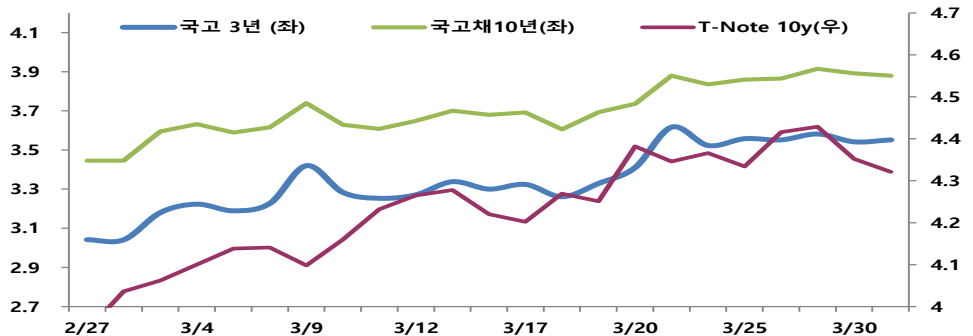
3월 동향

미국의 對이란 전격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유가 상승세 흐름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를 높인 가운데, 대내적 차기 한은 총재에 대한 시장의 매파적 성향 반영 속 연준 등 주요국 통화당국의 매파성향 반영되며 상승 마감

- 월 초, 미국의 전격 대이란 공습 이후, 국제 유가 급등 및 이란의 인접국 공세에 따른 전쟁 확산 우려 등이 국고채 금리 상승에 영향. 이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의해 국제 유가 100달러선 근접 영향 등도 국고채 금리 상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금리 급등에 따른 당국 시장 안정화 언급으로 국고채 금리 소폭 하향 안정화하는 모습 시현**
 - 월 초, 미국의 전격적 대이란 공습과 이에 따른 이란의 주변국 공세 속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국제유가 100달러선 전후 급등 영향이 글로벌 금리 상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
 - 하지만, 중동전쟁 조기 종전 기대감 속 주요 경제권역에서의 비축유 방출 등 유가 안정 정책 및 정책 당국의 시장 안정화 언급 등이 일시적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 형국
- 중반, 이란 호르무즈 통항 화물선 타격 등에 따른 유가 급등 이슈 재부각으로 국내외 물가 상승 우려 반영되며 국고채 금리 상승 전환. 이어 연준 및 주요 중앙은행들의 매파 성향 확대 등이 반영되며 국내외 금리 상승세 강화된 국면 시현**
 - 중반, IEA 비축유 방출 소식 및 정부의 시장 안정화 발언 등이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이어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항행 선박 타격 소식 등으로 유가 급등 관련 이슈가 재부각한 가운데, 이에 대한 국내 물가예의 부정적 영향 우려 등으로 금리 상승 전환
 - 국내외 금리가 이후에도 호르무즈를 둘러싼 유가 향방에 등락 나타내다 미-이스라엘의 전격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에 유가는 급등 상승 시현. 여기에 연준 매파적 금리 동결과 주요국 중앙은행들 금리인상 가능성 영향 등이 반영되며 국고채 금리 급격한 변동성 시현
- 후반, 대내적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 성향을 반영하며 상승세 보인 국고채 금리는 이후, 유가 향방에 종속된 흐름 나타난 가운데 중동정세 불확실성 가중 속 외국인 투자자의 부정적 수급 영향 등을 반영하며 상승 추세 흐름 속 마감**
 - 후반, 대내적 한은 총재 후보자 성향이 매파적으로 시장에 인식되며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 영향 반영 속 수급상 국고채 공급 요인이 영향을 미치면서 국고채 금리 상방 압력 지속된 국면 시현
 - 이어, 중동정세 격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부정적 수급 영향이 가중되며 상승 흐름 나타냈지만, 대내적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당국의 영향 등이 상방 압력을 다소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마감

주요 시장금리 추이

3월 평균
 국고채(3년): 3.36%
 T-Note(10년): 4.25%



단위 %

4 월 전망

‘WGBI’ 편입 자금 유입, 정책 당국 시장 안정 의지 등이 금리 상방 압력 제한 요인으로 판단. 하지만 중전 선언 부재한 트럼프 연설 이후 중동 이슈 중단기 지속 가능성 등은 여전히 국고채 금리 상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평균	1Q26	2Q26	3Q26	4Q26
국고채(3Y, %)	3.19	3.4 ^(f)	3.35 ^(f)	3.2 ^(f)

- 최근 중동 전쟁의 종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단기적 유가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존할 전망. 이는 파월 의장의 신중한 통화정책 언급에도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경계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에 연준의 매파적 기초 지속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중동 전쟁 종전 기대감이 급부상했음에도 차후 진행 여건에 따른 단기적 유가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존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상기 요인인 파월 의장의 신중한 통화 정책 언급에도 향후 유가 급등의 지연 효과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을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판단. 따라서 연준은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지지 않는 측면을 우선 고려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다소 매파적 기초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이 국내외 금리 상방 압력 요인으로 예상
- 3월 후반부터 조기 집행된 ‘세계국채지수’ 편입 자금 본격적 유입이 국고채 금리 하락에 주요하게 영향 미칠 전망. 여기에 중동 불확실성 지속 가능성에 따른 물가 상방압력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에의 적극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정책 당국 경계감 등이 금리 상단 제한 요인으로 예상

 - 중동 전쟁의 조기 종전 가능성이 다소 약화된 가운데, 유가변동 확대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 등으로 선제적 상승 추세 나타내던 채권 시장에 대한 안정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정책 당국 경계감이 다소 이어질 측면은 금리 상방 압력 완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여기에 3월 후반 이후 조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 국채지수(WGBI)’ 편입이 본격화함에 따른 패시브자금 유입 확대 기대 등이 국고채 금리 하방 압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중동 정세 불확실성에 따른 대내적 성장 모멘텀 약화를 고려한 ‘전쟁 추경’ 요인은 금리 상방 압력 요인. 하지만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물가 상승 압력에도 금융안정과의 균형을 고려한 통화정책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 성향 등을 고려 시, 유연한 통화정책 기대에 따른 측면 등이 국고채 금리 상방 압력을 다소 완화할 전망

 - 중동 이슈에 따른 공급 충격 등으로 민간 소비 위축과 생산성 부진 우려 확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정부 ‘전쟁 추경’ 은 금리 상방 압력 요인. 그러나, 국고채 발행 통한 재원 조달 측면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금리 방향성에 대한 영향은 다소 제한될 전망
 - 여기에 대외 이슈에 의한 국내 물가 상승 압력 확대에도 금융안정 측면을 고려한 통화정책의 균형 의지를 보이고 있는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 성향 등을 고려 시, 한은의 유연한 통화정책 기대 측면 또한 국고채 금리 상방 압력 완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4월 전망
3.2%~3.55%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 상존 속 국내 물가 상방 압력 확대 · 대내적 ‘추경’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GBI 편입 이후, 외화 자금 유입 확대 · 차기 한은 총재의 균형적 통화정책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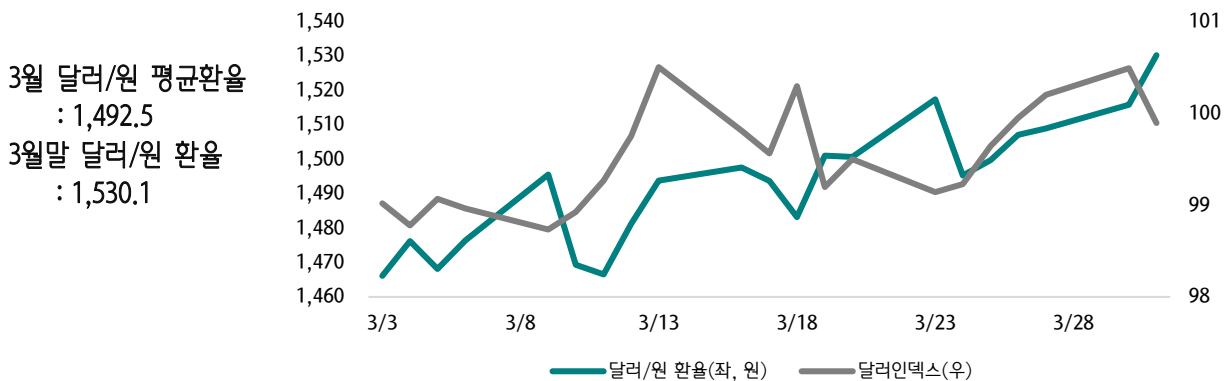
달러/원 환율

3월 동향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과 위험자산 회피 심리에 글로벌 달러 강세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이 가속화됨에 따라, 환율은 재차 연고점을 경신해가며 지난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520원대에서 마감

- 월초, 지난 주말 단행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시장 내 확전 우려와 조기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엇갈리는 혼란 속에 유가 급등하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됨. 이에 환율은 1,400원 중후반대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영국**
 -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회피 분위기가 급격히 고조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차질 우려로 국제유가가 급등. 이에 환율은 1,480원대까지 올라섰으나 미-이란 간 협상 기대감 유입되며 1,460원대로 되돌림 시현
 - 이란의 인접국 정유 시설 및 유조선 공격 등 중동 분쟁 격화되자, 유가 변동성과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한 글로벌 강달러에 1,499.2원까지 상승하며 연고점 경신. 이후, 국제 사회의 에너지 공급 안정 노력과 트럼프의 조기 종전 관련 언급에 1,460원대로 재차 하락
- 월 중반,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장 우려 속에 국제 유가 추이에 연동되어 환율도 불안정한 등락을 거듭. 여기에 3월 FOMC를 통해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스탠스 확인되자, 달러 강세폭 확대되며 1,500원대 진입**
 - 중반 들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 지속되는 가운데, IEA의 전력비축유 방출 효과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비판론과 중동 사태 장기화 전망 등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불안감이 확산됨. 이는 원화 약세를 자극함에 따라, 환율은 급등하며 장중 1,500원대를 터치
 - 이후 이란이 비적대국 대상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시사하자 국제유가가 급락, 이에 달러도 약세로 전환하면서 1,480원대로 하락. 그러나 이란의 걸프국 에너지 시설 공격과 시장 예상보다 매파적인 3월 FOMC 결과 등에 글로벌 강달러 나타나자 1,500원대 재진입
- 후반, 미-이란 간 강경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산유국 에너지 시설 공습 지속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한 국내 증시 외국인 연속 매도세 등에 환율은 1,520원대까지 상단을 높이며 연고점을 재차 경신**
 - 후반, 미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거론되자 위험회피 심리가 급격히 고조된 가운데, 이란과 대화 중이라는 트럼프의 낙관적인 언급과 이와 반대되는 이란 측의 강경 대응 기조 등 엇갈린 행보로 인해 환율도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며 1,500원선 넘나드는 흐름이 이어짐
 - 미-이란 간 대치 국면 지속되며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안전자산 수요와 유가 상승세가 맞물리며 달러인덱스는 100선 돌파. 여기에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까지 대거 유출되자, 환율은 상단을 점차 높여가며 1,530원대까지 상승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4 월 전망

이란 사태 장기화 우려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와 달러 강제 영향으로 원화 약세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다만, 대내적 지지 요인들이 대외 리스크로 인한 환율 추가 상승 압력을 제한해줄 것으로 판단

평균	1Q26	2Q26	3Q26	4Q26
달러/원 환율(원)	1,467	1,495 ^(F)	1,470 ^(F)	1,420 ^(F)

- 3월 FOMC에서 중등 리스크를 반영해 다소 매파적 입장을 보였으나, 에너지 가격 변동의 물가 반영 시차를 감안해 당분간 신중한 관망세 유지할 것으로 예상. 이에 긴축 우려 제한되며 연준 통화정책이 강달러 견인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 3월 FOMC의 인플레이션 및 중립금리 전망치 상향 조정과 매파적으로 인식된 파월 의장 기자회견 등에 연준이 금리인상 기조로 선 회할 수 있다는 시장 경계감이 고조되었으나, 단기 내 긴축보다는 중등 상황 주시하며 신중한 관망 모드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중등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실물 경제 지표에 반영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준은 당분간 동결 기조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임. 이에 시장 내 금리인상 경계감 제한되며, 연준 정책이 달러 가치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을 전망
- 미-이란 분쟁 장기화 우려와 트럼프의 변칙적인 대외 행보로 인해 시장 변동성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가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위험회피 심리를 통해 원화 약세 자극할 전망**
 - 최근 미-이란 정상 간 유화적 제스처로 중등 분쟁의 조기 종식 기대감이 일부 형성되었으나, 협상 조건의 간극이 커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 시장 상황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낙관론과 실망감을 동시 자극하고 있어, 시장 변동성 지속될 것으로 판단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내 위험자산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호르무즈 해협 관련 석유 수입국들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함에 따라 에너지 공급 불안 속 원화 절하폭은 재차 확대될 소지
- 중등 리스크로 국내 증시 외국인 매도세 이어질 가능성 있으나,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와 정부 환율 안정 대책, WG BI 편입 자금 유입 등에 수급 여건 개선 기대되는 가운데 4월 금통위의 신중한 매파 기조 전망도 원화 약세 제한할 요인**
 -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차익 실현 수요로 인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 지속되고 있으나, 중등 악재 속에서도 한국 3월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전년대비 48.3% 급증하는 등 외환 수급 여건 개선 기대되는 점은 원화 약세를 방어해줄 요인이 될 전망
 - 또한, 이달부터 유입될 WGBI 편입 자금과 RIA 등 정부의 환율 안정 위한 정책적 노력은 대외 리스크에 의한 원화 가치 하락을 일부 상쇄해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등 사태로 4월 금통위에서 유연한 매파 대응 예상되는 점도 환율 상승폭 제한할 것으로 판단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4월 달러/원 환율
1,495~1,545원 예상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등 사태 장기화 우려로 인한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 심리 유가 불안 등 에너지 공급 차질 우려 지속 외국인 배당금 지급 관련 역송금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 중심의 견조한 수출 펀더멘털과 WGBI 편입에 따른 추종 자금 유입 등 수급 여건 개선 기대 정부의 환율 안정 대책과 한은의 매파적 기조 강화 가능성

자료: 하나은행

이중통화

엔화 전망

중동 분쟁의 중단기적 지속 가능성 속 등 영향의 유가 영향이 BOJ 긴축 통화정책 의지에 영향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다카이치 행정부 확장적 재정정책 영향이 다소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 등에 따라 158엔대 전후 흐름 예상

3월 달러/엔 평균환율 : 158.7
3월 엔/원 평균환율 : 938.9

■ **(엔화 동향)**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 급등하자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일본 경제에 대한 우려가 깊어짐에 따라 엔화는 약세 보이며 158엔대로 상승. 중반, IEA의 비축유 추가 방출 발표와 미-이란 협상 기대감에 유가 상승세가 주춤하자 약세폭 일부 되돌려지는 듯했으나, 매파적인 3월 FOMC 영향으로 달러 강세 심화되며 엔화는 다시 약세로 전환. 후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공격 등에 유가 불안 고조되며 엔화는 160엔 선을 돌파했으나 당국 구두개입에 159엔대 마감

4월 엔/원 예상범위 : 935-960원

■ **(엔/원 전망)** 중동전쟁 종전 가능성은 달러 약세 전환에 따른 엔화 강세 요인. 하지만, 4월중에도 불확실성 상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유가에 의한 지연 반응 등이 일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측면 등이 BOJ 금리인상 기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 의지 등이 통화정책 기대를 다소 낮추며 엔화의 약세 기조 우위 보일 전망
· 중동 전쟁 종전 가능성에 따른 달러 약세 전환은 엔화 강세 지지 요인으로 판단되나 상황은 다소 예의 주시가 필요. 반면, 유가 다소 지연 반응 속 물가 상승 영향 측면이 BOI 금리인상 기대에 영향 미칠 요인으로 판단
· 하지만, 일본 정부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이 통화정책 기대에 우위에 서며 엔화 약세 기조에 영향 미칠 가운데, 엔/원 환율은 중동 정세 안정화 시 상대적 원화 강세 속 935-960원대 예상

유로화 전망

유로존 인플레이션 상승 추세 전환 등은 ECB 긴축 기조 영향을 통해 유로화 강세 견인할 요인이나, 중단기적 중동 이슈 지속 전망에 따른 달러 강세 및 유로존 경기 모멘텀 약화 등이 주요하게 유로 약세에 영향 미칠 전망이다

3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1563
3월 유로/원 평균환율 : 1,723.0

■ **(유로화 동향)** 미-이란 간 군사적 충돌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에너지 공급망 차질 우려가 심화되자, 유로존 경기 둔화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유로화는 약세 흐름으로 출발. 중반, 이란전쟁 장기화 우려로 1.14달러대 초반까지 약세를 보였으나, 3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매파적 기조가 확인되자, 이에 힘입어 1.15달러대 후반까지 반등. 후반, 독일 3월 CPI가 전년대비 2.8% 급등하는 등 에너지 가격 상승이 유로존 경기 하방 리스크를 자극할 것이란 우려에 약세로 돌아서며 마감

4월 유로/원 예상범위 : 1,730~1,770원

■ **(유로/원 전망)**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 전망이 달러 강세 견인하며 유로 포함 주요 통화 약세 견인 요인. 중동 전쟁이 유가 및 천연가스 변동성을 키우면서 독일 등의 주요국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점은 통화강세 요인이지만, 이러한 통화 긴축 선회 요인이 중부유럽 및 중동 전쟁 장기화와 맞물리면서 경기 모멘텀을 크게 약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으로 유로 약세 흐름 보일 전망
· 미-이란 전쟁 충돌 장기화 가능성에 따른 위험회피 강화 등이 달러 강세 견인 속 유로 약세에 영향 미칠 전망이다
· 다만, 천연가스 등 에너지 시설 파괴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은 ECB의 매파 성향에 영향 미치며 유로 강세 요인이나 상대적 긴축 선회 가능성에 따른 경기 부진이 중부유럽 및 중동 전쟁 장기화와 맞물리는 측면은 경기 모멘텀 훼손에 영향 미칠 전망이다. 유로/원은 원화의 상대적 약세 속 평균 1,755원 전후 예상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6년 4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한국 국제 WGBI 편입 :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간 단계적으로 진행 한 3월 수출/입(YoY +29.0%, +7.5%), 무역수지 S&P 글로벌 제조업 PMI(51.1) 미 2월 소매판매(MoM +0.0%) 3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F)(52.4) ISM 고용, 신규주문, 제조업, 구매물가 ADP취업자 변동(63K) 중 3월 레이팅독 제조업 PMI(52.1) 유 2월 실업률(6.1%) 3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F)	2 [기업] 인벤테라 코스닥 상장 사우디 아람코, 자국 원유 공식 판매 가격 발표 한 3월 CPI(MoM +0.3%, YoY +2.0%) CPI 근원(YoY +2.3%) 미 2월 수출/입(YoY +5.5%, -0.7%), 무역수지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월 Challenger Job Cuts(YoY -71.9%) 호주 무역수지 수출입 MoM	3 미 고용보고서 [요청] 미국, 독일, 영국, 홍콩(부활절) 한프 정상회담(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방한) 한 2월 경상수지, 상품수지 미 3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92K) 민간 부문 고용자수 변동(-86K) 미 시간당 평균 임금, 실업률(4.4%) ISM 서비스, 가격, 고용, 신규주문 S&P 글로벌 종합, 서비스업 PMI(F) 중 3월 레이팅독 종합, 서비스 PMI(55.4, 56.7) 일 3월 S&P 글로벌 종합, 서비스 PMI(F)	4
5	6 [요청] 중국, 홍콩(청명절), 영국, 독일(부활절) HumanX 2026(~9) : 세계 최대 글로벌 AI 컨퍼런스, 시판 다보스 포럼 TEAMZ Web3/AI Summit 2026(~8)	7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요청] 홍콩(부활절) [채권] 미국 3년물 국채 입찰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공개 : 컨센서스 기준 매출액 115조원, 영업이익 36조원 LG전자, LGE너지 솔루션 1분기 잠정 실적 공개 미 2월 소비자신용지수 3월 뉴욕 연준 1년 기대 인플레이션(3.0%) 유 3월 S&P 글로벌 종합, 서비스업 PMI(F) 4월 섀넥스 투자자기대지수(-3.1) 일 2월 선형지수, 동행지수[P]	8 지존일 FOMC 3월 회의록 공개 [채권]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 Japan IT Week Spring 2026(~10) 2026 대만 디스플레이 박람회(~10) 2026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10) 2026 한국전자제조산업전(EMK)(~10) 유 2월 소매판매(MoM -0.1%, YoY +2.0%) PPI(MoM +0.7%, YoY -2.1%) 일 3월 경기관찰조사 연명(48.9)	9 올선반기일 한국 올선반기일 [채권]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 기아 CEO 인베스터 데이 :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등 미래 전략 발표 미 2월 PCE(MoM +0.3%, YoY +2.8%) PCE 근원(MoM +0.4%, YoY +3.1%) 4Q GDP, GDP 물가지수, 개인소비(T) 일 3월 소비자자기대지수(40.0)	10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미국 CPI 11 [기업] 채비 수요예측(~16)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2.5%로 6연속 동결 미 3월 CPI(MoM +0.3%, YoY +2.4%) CPI 근원(MoM +0.2%, YoY +2.5%) 4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연향[P]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P] 중 3월 CPI(YoY +1.3%), PPI(YoY -0.9%) 일 3월 PPI(MoM -0.1%, YoY +2.0%)	
12	13 IMF/WB 연례 회의(~18) IMF/WB 연례 총재 회의(~18) : IMF 세계경제전망(WEO) 발표. 지난 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3.3%, 미국 2.4%, 한국 1.9% 전망 OPEC 월간 원유시장 보고서 사우디 LEAP 2026(~16) 2026 UAE 두바이 가스&오일 컨퍼런스(~15) 한 4월 1~10월 수출/입(YoY +55.6%, +21.7%) 미 3월 기준주택매매(MoM +1.7%) 연방재정수지 일 3월 통화량 M2(YoY +1.7%)	14 미국 PPI IMF/WB Civil Society Policy Forum(~17) 미국 항공 제조 산업 전시회(~16) 미국 디트로이트 자동차 부품 전시회(~16) 미 3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98.8) PPI(MoM +0.7%, YoY +3.4%) PPI 근원(MoM +0.5%, YoY +3.9%) 중 3월 수출/입(YoY +39.6%, +13.8%), 무역수지 일 2월 광공업생산[F], 설비가동률	15 Beige Book 연준 베이지북 공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16) : 경제 성장·규제 완화·에너지 자립 등 정책 조율 미국 무역법 301조 관련 의견서 제출 기한 한 2월 통화자금 M2(MoM +0.7%) 3월 실업률(2.9%) 수입물가(MoM +1.1%, YoY +1.2%) 수출물가(MoM +2.1%, YoY +10.7%) 미 3월 수입물가 수출물가 4월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0.2) NAHB 주택시장지수(38.0)	16 미 3월 광공업생산, 설비가동률 4월 뉴욕 연준 서비스업 경기활동(-22.6)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18.1) 중 3월 기준주택가격(MoM -0.4%), 광공업생산 신규주택가격, 실업률(5.3%) 1Q GDP(QoQ +4.5%, YoY +5.0%) 유 3월 CPI(F)(YoY +1.9%) CPI 근원(F)(YoY +2.4%)	17 미국 AACR(~22) [기업] 아나오피스트즈 코스피 상장 미국 올선반기일 미국 AACR(~22) : 세계 3대 암약회 중 하나. 국내외 기업들의 차세대 항암제, ADC 등 연구성과 발표 기대감 존재 ESCMID Global 2026(~21) 유 2월 무역수지, 경상수지	18
19	20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임기 만료 야노버 메세 2026(~24) 2026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 대전(~22) 2026 중국 텐진 국제뷰티박람회(~22) 유 2월 간질 생산(MoM -0.1%) 독일 PPI MoM, YoY 일본 무역수지 수출입 YoY	21 한국은행 신임 총재 공식 취임 및 임기 시작 미국 뉴욕 국제 제약 박람회(~23) 한 4월 1~20일 수출/입(YoY +50.4%, +19.7%) 미 3월 미결제주택매매(MoM +1.8%) 소매판매, 소매판매 근원 4월 필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 유 4월 ZEW 경기전망지수(-8.5)	22 [채권] 미국 20년물 국채 입찰 WEF 글로벌 협력 및 성장 회의(~23) 구글 클라우드 베스트 2026(~24) 월드 IT소 2026(~24) 2026 국제 그린에너지엑스포(~24) 2026 중국 베이징 전자엑 산업 박람회(~25) 한 3월 PPI(MoM +0.6%, YoY +2.4%) 유 4월 소비자자기대지수[P] 일 3월 수출/입(YoY +4.2%, +10.2%)	23 [자동차] 유럽 3월 판매 데이터 한 4월 소비자심리지수 1Q GDP[A](QoQ -0.2%, YoY +1.6%) 미 3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지수 4월 캔자스시티 제조업활동 S&P 글로벌 제조업 PMI[P] S&P 글로벌 종합, 서비스업 PMI[P] 유 4월 S&P 글로벌 제조업, 종합, 서비스업 PMI[P] 일 4월 S&P 글로벌 종합, 서비스 PMI[P] S&P 글로벌 제조업 PMI[P]	24 2026 베이징 국제 모터쇼(~5/3) 미 4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연향[F]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F] 캔자스시티 연준 서비스업 활동 델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일 3월 전국, 국내 CPI, PPI 서비스 영국 소매판매 MoM, YoY 독일 IFO 기업 환경지수	25
26	27 BOJ 금융정책위원회(~28) [채권] 미국 2년물 국채 입찰 BOJ 금융정책위원회(경제전망)(~28)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0.75%로 2연속 동결했으나 인상 기조 유지.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 관심 2026 자율제조 시 월드쇼(AMWS) 독일 Crk 소비자 신뢰지수 미 델러스 연준 제조업지수	28 미국 FOMC(~29) 미국 FOMC(~29) : 지난 회의에서 정책금리 3.50~3.75%로 2연속 동결. 성장률·물가 상향. 점도표 26년 3.4%, 27년 3.1% 미 2월 FHFA 주택가격지수 S&P 코어로직 CS 20개 도시 4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리치몬드 연준 경기연향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자기대지수 델러스 연준 서비스업 활동 일 3월 실업률	29 [요청] 일본(쇼와의 날) [채권] 미국 7년물 국채 입찰 유 4월 소비자자기대지수[F] 호주 CPI 상승률 YoY 미국 내구재주문 MoM 미국 주택 착공 MoM 캐나다 BoC 금리결정, 통화정책보고서	30 ECB, BOE 통화정책회의 ECB 통화정책회의 : 지난 회의에서 예금금리 2.0%로 6연속 동결 BOE 통화정책회의(경제전망)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3.75%로 2연속 동결 한 3월 광공업생산 미 3월 PCE, PCE 근원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수 1Q GDP, GDP 물가지수, 개인소비[A] 4월 MNE 시카고 PMI 중 4월 제조업, 비제조업, 종합 PMI 레이팅독 제조업 PMI 일 3월 소매판매, 주택착공건수, 광공업생산[P]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